

유통·화장품 한 주 짝잡기



Analyst 안지영 6915-5675 [jyahn@ibks.com]

주간 유통/화장품 뉴스

롯데-신세계, '미니스톱' 인수전... 편의점 시장 새 판 짚까(시장경제 2018.11.18)

최근 미니스톱이 매물로 나오면서 편의점 업계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음. 유통 공룡 롯데와 신세계가 '세븐일레븐'과 '이마트 24'를 앞세워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편의점 업계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보임. 롯데와 신세계 중 고민이 더 큰 곳은 신세계로 최근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편의점 '이마트24' 사업이기 때문. 하지만 신세계의 의욕과 달리 이마트24의 실적은 부진을 거듭 중.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니스톱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최대 경쟁사가 업계 1위를 노리는 '롯데'. 10월 말 기준으로 편의점 매장 수는 CU가 '1만3109개'로 가장 많음. 이어 GS25가 '1만3018개', 세븐일레븐이 '9548개', 이마트24 '3564개', 미니스톱 '2533개' 순임. 롯데 입장에서 매장 2500여개를 추가할 경우 CU, GS25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음. 부동의 빅3 체제가 완성되는 것. 하지만 신세계가 미니스톱을 인수하면 점포는 6000개로 증가하면서 새로운 빅4 체제로 돌입함. 최저임금 인상과 점포 포화 문제로 신규출점이 어려워지면서 이마트24의 공격적인 점포 수 증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미니스톱 인수가 '이마트24'에게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 한편, 롯데와 신세계의 경쟁에 또 한 곳이 참여했는데, 주인공은 바로 '글랜우드PE' 사모펀드. 유통업계에서는 당연히 롯데와 신세계 중 한 곳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글랜우드PE'의 변수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 일각에서는 미니스톱의 대주주인 일본 이온그룹이 미니스톱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사모펀드에 매각되는 것을 내심 원한다는 얘기도. 한국미니스톱의 지분은 이온그룹 계열사인 일본 미니스톱이 76.6%를 가지고 있으며, 대상그룹이 20%, 일본 미쓰비시가 3.94% 순.

中 단체관광 재개... '유커 물려오나' 면세점업계 기대(시사오늘 2018.11.16)

중국 당국의 '한한령' 해제 분위기에 면세점계가 큰 기대감이 조성됨.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사드 보복의 일환으로 금지했던 온라인여행사를 통한 중국인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함.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인 씨트립은 14일 본사에서 임원 회의를 갖고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결정, 이날 오후 씨트립 홈페이지에 한국 단체관광 상품이 올라오기 시작함. 중국 당국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함에 따라 향후 씨트립 외에 모든 온라인 여행사에서도 한국 관광 상품을 취급하게 될 전망. 이는 지난해 3월 중국 정부가 사드 보복 조치를 본격화한 지 1년 8개월 만으로, 앞서 중국 당국이 지난해 11월 베이징시와 산둥성을 시작으로, 올해 5월 우한·충칭시, 후베이성, 8월 상하이시, 장쑤성 등 지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오프라인 한국 단체관광을 다시 허용했음. 다만 단체 여행 재개에는 롯데호텔, 롯데백화점 등 사드 기지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 계열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가 붙음. 이는 중국이 금지해왔던 이른바 4불 정책 중 롯데와 관련된 부분이 적용된 것으로 보여 당장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 중국의 4불 정책은 △온라인 여행사 취급금지 △전세기 금지 △크루즈선 금지 △롯데그룹 이용 금지 등임. 일부 면세점계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면세점계 관계자는 "이번 씨트립 판매 재개는 중국인 한국 관광 재개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전반적으로 조만간 중국인 단체 관광이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다"고 밝힘

"아마존 혁신, 新뉴욕 만들것" 흥분(매일경제 2018.11.16)

"롱아일랜드시티는 아마존 덕분에 미국 최고 최첨단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제2 본사 입지 중 하나로 선정한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시티 주민들은 기대감에 부푼. 지난 14일 뉴욕 맨해튼 최고 변화가인 42번가 타임스퀘어에서 퀸스 방향으로 7번 지하철을 타고 3개 정거장을 지나 이스트강을 건너면 롱아일랜드시티가 나옴. 뉴욕시는 맨해튼, 브루클린, 퀸스, 브롱크스, 스테튼 아일랜드 등 총 5개 자치구로 구성돼 있는데, 롱아일랜드시티는 퀸스에 속함. 아마존은 제2 본사 입지로 뉴욕 롱아일랜드시티와 버지니아 북부 알링턴 인근 내셔널 랜딩을 선정했다고 밝히면서 롱아일랜드시티에 대해 "예술과 산업이 교차하는 커뮤니티"라고 설명. 이런 이점 때문에 지난해에는 네덜란드 통신기업인 알티스가 미국 본사를 이곳으로 이동. 대표적인 자동차 공유 업체로 스타트업 성공 역사를 쓰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도 최근 이 지역에 오피스를 항공사인 제트블루는 2012년에 입성. 의류회사인 랄프로렌도 일부 오퍼레이션을 이곳에 두고 있음. 순 리 대표는 아마존 효과로 이 지역 경제는 훨씬 더 활성화할 것이라며 "이미 부동산 시장이 들쭉고 있다"고 전함. 그는 "이곳이 새로운 'TAMI'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고급 콘도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내년까지 완공될 콘도가 6200가구에 달하고, 방 3개짜리 고급 콘도 월세는 5500달러 이상으로 맨해튼과 큰 차이가 없다"고 덧붙임.

‘홈뷰티’ 열풍으로 달아오른 뷰티 디바이스 시장(아주경제 2018.11.16)

집에서 간편하게 피부를 관리하는 ‘홈 뷰티’ 열풍으로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 뷰티기기 업체들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신기술을 접목하는 등 전문화된 디바이스를 선보임. LG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가정용 뷰티 디바이스 시장은 2013년 800억원 규모에서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여, 올해는 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 시장의 성장에 따라 초기 홈 뷰티 트렌드를 이끌던 진동클렌저, 마사지기 등 기본적인 제품은 전문적인 성능을 구현한 뷰티 디바이스 제품으로 진화함. 업계에서도 신기술을 접목해 실질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지닌 제품들을 내세우며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중.

가성비 'NO' 고급화 'YES'...홈쇼핑 패션PB의 생존 전략 (사사오늘, 시사ON, 시사온 2018.11.15)

홈쇼핑업체가 자체 패션브랜드(PB)로 경쟁력을 구축. CJ·롯데·현대 등 주요 홈쇼핑 업체들은 신규 패션PB 론칭은 물론, 유명 디자이너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활용 중. 실제 패션 PB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업체들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제품을 내세웠던 과거와는 달리 고급화 전략으로 매출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 최근 CJ오쇼핑의 패션 PB인 ‘옛지’(A+G)는 연 매출 1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음. GS홈쇼핑은 유명 디자이너·패션업체들과 손잡고 프리미엄 패션 PB를 내놓음. 손정완 디자이너의 ‘SJ와니’, 김서룡 디자이너의 ‘K by김서룡’, 프랑스 보마누와 그룹의 ‘모르간’ 등이 대표적인 사례. 롯데홈쇼핑은 자체 전담팀을 꾸려 패션 PB 브랜드를 중점 육성, 이탈리아·스페인 패션 업체와 기획부터 개발·생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LBL’이 대표적. LBL은 2년 만에 누적 주문금액 1,800억 원을 돌파하며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 현대H몰 관계자는 “상품군을 생활·주방용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중장기적으로 현대H몰뿐 아니라 타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등을 비롯해 해외 수출 등을 통해 판로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글로벌 명품업체, 中증시·부동산 침체 직격탄(아주경제 2018.11.07)

루이비통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최대 명품업체인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는 최근 중국 내 루이비통 제품 매출 증가율이 10%대 후반에서 10%대 초반으로 떨어졌다고 밝힘. 중국의 수입 자동차 판매액도 지난 9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 9월 감소폭은 11.6%로 6년여 만에 가장 컸음. NAR은 중국 증시와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중산층의 구매력을 떨어뜨린 결과라고 분석. 중국 증시 대표지수인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월 고점에서 30% 추락했고,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회사들은 새로 지은 아파트를 30%나 낮은 가격에 팔고 있음.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국 중산층의 구매력을 떠받친 게 느슨한 신용(대출)에서 비롯된 증시와 부동산시장 수익이라고 지적함. 홍콩무역개발위원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중산층 가정의 95%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이들은 월간 소득의 26.6%를 주식 등 금융상품에 투자함. 소비보다 투자 비중이 높다는 설명. 증시와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중국 지도부가 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금융 스크(위험)차단에 집중한 데 따른 부작용이기도 함. 주류 은행권을 통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중국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P2P(개인 간) 대출이 성행했는데, 중국 정부는 최근 이에 대한 규제도 강화. 중국의 성장둔화와 맞물린 미·중 무역전쟁의 역풍도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며 구매력이 큰 중산층의 경계감을 키움. NAR은 이 같은 추세가 중국 지도부가 추진하는 경제구조개혁에 역풍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 중국이 그 동안 고속 성장한 배경인 제조업 수출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위기에 몰린 상태. 중국 정부는 새 성장엔진으로 내수를 내세우는 구조개혁을 추진 중.

업종코멘트(11/19-11/23)

유통, 화장품: 소비 침체기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3사가 실적회조는 해외수입 명품의 두 자리 수 신장세 영향이 큼. 올해 9월 기준 주요 유통업체 오프라인 매출을 살펴보면 백화점의 경우 구매건수는 전년 동기 보다 1% 감소했지만 구매 단가는 5.8% 증가함. 상품군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분류 기준 해외 유명브랜드(수입명품) 상품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10.3% 증가함. 백화점 매출 비중의 평균 60~70% 비중인 국내패션의 성장률의 3년 연속 감소에서 2018년 소폭 감소로 회복세를 보인 점도 긍정적.

국내외 업종 지수 및 Peer 종목군 주가 상승/하락률

지수	증가(pt)	주간 절대 등락률(%)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KOSPI	2,092.40	0.30%	롯데쇼핑	0.00	8.19	6.60	GS리테일	0.28	-4.00	-9.21
KOSDAQ	690.18	0.42%	현대백화점	2.75	2.39	-1.21	코웨이	3.44	8.75	-10.21
유통업	388.81	1.35%	신세계	5.68	1.27'	-3.46	아모레퍼시픽	2.55	-8.00	-18.48
주요 환율	현재가	등락률(%)	이마트	-4.20	-4.43	-8.27	LG생활건강	3.69	-0.78	5.69
KRW/USD	1,130.30	1.06	롯데하이마트	-3.09	-7.14	-12.48	코스맥스	7.53	4.05	-5.51
KRW/JPY	995.25	1.48	CJ오쇼핑	-4.27	-4.23	-9.23	한국콜마	5.62	-0.17	-8.94
KRW/CNY	162.96	0.90	현대홈쇼핑	0.22	-5.00	-5.77	토니모리	38.31	32.32	4.63
			엔에스쇼핑	4.44	8.80	1.73	잇츠스킨	2.90	-0.75	-16.35
			GS홈쇼핑	3.18	-1.83	-3.83	클리오	7.83	0.86	-15.83
			BGF리테일	-0.59	-3.42	-14.61	코스메카코리아	31.88	25.19	6.73

자료: Quantwise, IBK투자증권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증감률	1W	2W	1M
시세이도	-0.6	-5.8	2.1	노드스트롬	0.5	-4.2	1.2	텐센트	-5.7	-1.8	3.9
로레알	1.7	3.9	12.2	맥스&스펜서	1.2	10.6	9.2	알리바바	-5.9	-4.8	-1.4
에이본프로덕츠	7.5	12.5	11.3	다카시마야	-9.9	-11.3	-5.7	JD닷컴	-7.1	-4.3	-5.9
상해자화	9.2	3.3	9.0	이온 물	-6.3	-3.1	2.4	VIP샵	0.3	1.2	13.4
크리스찬디올	1.6	-2.4	3.1	세븐&홀딩스	1.2	4.9	12.4	스타트투데이	4.0	-4.3	3.2
P&G	1.5	4.5	15.8	아마존	-1.3	-0.6	7.0	이베이	7.8	5.8	4.4
고세	7.6	3.6	3.7	월마트	-0.1	1.7	4.7	메르카도리브레	11.5	0.6	-1.7
에스티로더	3.3	1.2	12.7	테스코	-5.4	-2.8	-11.0	라쿠텐	11.9	-2.9	0.9
LVMH	0.5	-4.2	1.2	타겟	-5.7	-1.8	3.9				
ULTA	1.2	10.6	9.2	까르푸	-5.9	-4.8	-1.4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화장품 글로벌 피어	시세이도	로레알	에이본 프로덕츠	상하이 자화	크리스찬 디올	P&G	고세	에스티로더	LVMH	ULTA
현재가(현지통화)	7,290.00	209.00	2.16	27.90	339.20	93.83	18,660.00	144.85	267.45	311.81
시가총액(백만USD)	25,744	133,046	955	2,697	69,561	233,769	9,982	52,559	153,472	18,637
매출액 (백만USD)	2016 7,840 2017 8,964 2018 9,699 2019 10,507	2016 27,578 2017 29,400 2018 30,460 2019 32,178	2016 5,718 2017 5,716 2018 5,547 2019 5,363	2016 890 2017 953 2018 1,041 2019 1,223	2016 43,721 2017 49,330 2018 53,242 2019 56,905	2016 65,058 2017 66,832 2018 66,723 2019 68,798	2016 2,468 2017 2,738 2018 2,947 2019 3,142	2016 11,824 2017 13,683 2018 14,339 2019 15,260	2016 41,617 2017 48,167 2018 53,009 2019 56,970	2016 4,855 2017 5,885 2018 6,711 2019 7,520
영업이익 (백만USD)	2016 339 2017 717 2018 1,083 2019 1,294	2016 4,342 2017 5,079 2018 5,509 2019 5,928	2016 322 2017 273 2018 264 2019 259	2016 37 2017 54 2018 93 2019 121	2016 7,874 2017 9,263 2018 N/A 2019 N/A	2016 13,955 2017 13,711 2018 14,351 2019 15,160	2016 362 2017 437 2018 522 2019 568	2016 1,692 2017 2,052 2018 2,419 2019 2,671	2016 7,638 2017 9,169 2018 11,302 2019 12,277	2016 655 2017 785 2018 858 2019 985
순이익 (백만USD)	2016 296 2017 203 2018 681 2019 836	2016 3,438 2017 4,046 2018 4,547 2019 4,870	2016 -108 2017 22 2018 49 2019 64	2016 30 2017 58 2018 74 2019 95	2016 1,952 2017 2,531 2018 3,125 2019 3,445	2016 15,326 2017 9,750 2018 11,422 2019 12,010	2016 200 2017 276 2018 334 2019 360	2016 1,249 2017 1,108 2018 1,799 2019 1,980	2016 4,406 2017 5,794 2018 7,260 2019 7,915	2016 410 2017 555 2018 657 2019 749
PER (배)	2016 36.8 2017 95.6 2018 38.1 2019 31.4	2016 31.5 2017 27.1 2018 29.6 2019 27.6	2016 68.5 2017 37.1 2018 50.2 2019 13.9	2016 90.4 2017 63.6 2018 35.9 2019 28.5	2016 20.3 2017 24.4 2018 22.3 2019 20.2	2016 33.7 2017 19.0 2018 21.3 2019 20.0	2016 26.5 2017 41.5 2018 28.0 2019 26.0	2016 26.0 2017 31.6 2018 29.8 2019 26.9	2016 22.9 2017 24.0 2018 21.0 2019 19.3	2016 41.0 2017 26.1 2018 28.6 2019 24.4
ROE (%)	2016 8.2 2017 5.6 2018 17.7 2019 19.3	2016 12.9 2017 14.5 2018 15.2 2019 15.2	2016 N/A 2017 N/A 2018 N/A 2019 N/A	2016 3.7 2017 7.3 2018 8.9 2019 10.5	2016 16.0 2017 18.2 2018 20.2 2019 19.9	2016 27.8 2017 18.3 2018 22.5 2019 22.2	2016 13.9 2017 17.6 2018 19.5 2019 18.6	2016 31.4 2017 24.4 2018 38.2 2019 43.5	2016 15.7 2017 18.6 2018 20.5 2019 19.9	2016 27.4 2017 33.4 2018 35.7 2019 37.7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대표 소비재의 투자지표

유통 글로벌 피어		노드 스트롬	맥스& 스펜서	다카시 마야	이온 몰	세븐& 홀딩스	아마존	월마트	테스코	타겟
현재가(현지통화)		58.99	293.00	1,892.00	2,107.00	5,001.00	1,619.44	99.54	205.70	80.76
시가총액(백만USD)		9,963	6,106	2,969	4,231	39,137	791,855	291,526	25,836	42,508
매출액	2016	14,757	13,882	7,962	2,496	42,978	135,987	485,873	74,106	69,495
(백만USD)	2017	15,478	14,194	7,960	2,587	43,162	177,866	500,343	75,382	71,879
	2018	15,962	13,602	8,276	2,793	58,464	232,484	514,579	83,521	75,302
	2019	16,338	13,665	8,488	2,953	60,436	280,172	528,813	85,389	77,064
영업이익	2016	805	331	314	416	3,372	4,186	22,764	1,348	4,969
(백만USD)	2017	926	208	317	442	3,516	4,106	20,437	2,409	4,312
	2018	944	766	276	474	3,669	12,269	21,886	2,759	4,196
	2019	985	767	313	517	3,942	17,564	21,635	3,206	4,235
순이익	2016	354	153	193	264	895	2,371	13,643	-53	2,737
(백만USD)	2017	437	34	212	274	1,626	3,033	9,862	1,581	2,934
	2018	618	521	179	290	1,886	13,744	14,165	1,701	2,897
	2019	639	524	205	315	2,192	18,281	13,419	2,096	2,882
PER	2016	13.6	46.8	16.9	13.8	40.2	152.7	15.4	234.6	12.7
(배)	2017	16.9	168.9	16.1	16.7	21.8	256.6	24.1	16.9	15.5
	2018	16.3	11.5	16.5	14.7	20.9	61.1	20.6	14.8	14.8
	2019	15.5	11.5	14.5	13.6	17.9	46.3	21.1	12.3	14.2
ROE	2016	40.7	3.5	5.1	8.3	4.1	14.5	17.2	-0.5	22.9
(%)	2017	47.3	0.8	5.6	8.4	7.6	12.9	12.7	14.3	25.9
	2018	52.9	14.2	4.5	8.5	8.6	26.2	15.1	10.4	24.1
	2019	50.9	14.4	4.9	8.5	9.3	25.2	17.8	11.2	23.9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

유통 글로벌 피어		까르푸	텐센트	알리바바	JD닷컴	VIP샵	스타트 투데이	이베이	메르카도 리브레	라쿠텐
현재가(현지통화)		17.63	290.40	156.22	24.20	5.66	2,299.00	28.17	340.77	940.00
시가총액(백만USD)		15,795	352,957	404,951	34,710	3,752	6,325	27,123	15,404	11,905
매출액	2016	87,843	22,880	23,531	38,895	8,522	706	8,979	844	7,209
(백만USD)	2017	92,207	35,223	37,825	53,678	10,802	888	9,567	1,398	8,424
	2018	87,002	45,417	54,736	67,038	12,366	1,158	10,738	1,447	9,540
	2019	88,737	59,110	75,254	82,765	13,969	1,478	11,267	1,978	10,714
영업이익	2016	2,190	7,971	7,145	-188	408	243	2,325	181	735
(백만USD)	2017	786	12,540	10,476	-124	399	295	2,265	56	1,342
	2018	2,149	14,634	8,894	-372	414	310	2,924	-72	1,261
	2019	2,336	17,063	14,314	176	511	414	3,089	26	908
순이익	2016	826	6,188	6,493	-573	307	158	7,266	136	354
(백만USD)	2017	-600	10,594	9,687	-23	289	182	-1,016	14	986
	2018	841	11,054	12,707	470	375	217	2,288	-27	844
	2019	1,016	13,741	17,150	1,097	435	289	2,377	27	550
PER	2016	21.6	38.7	47.1	N/A	22.2	45.1	18.1	47.5	42.5
(배)	2017	N/A	44.5	44.8	N/A	23.8	43.9	30.4	197.1	12.9
	2018	18.3	30.9	30.9	82.7	10.2	29.1	12.2	N/A	13.4
	2019	15.3	25.5	23.8	42.6	8.8	21.6	11.0	621.8	20.9
ROE	2016	7.4	27.9	17.6	-11.8	43.9	72.7	84.9	35.5	5.7
(%)	2017	-5.2	33.2	19.9	-0.4	19.5	57.4	-10.9	3.7	16.2
	2018	6.6	26.4	15.8	-0.7	13.9	62.9	32.0	-13.7	12.7
	2019	8.2	24.3	18.2	4.5	13.4	68.0	34.4	4.2	8.0

주: 회계 결산연도 기준, 자료: Bloomberg